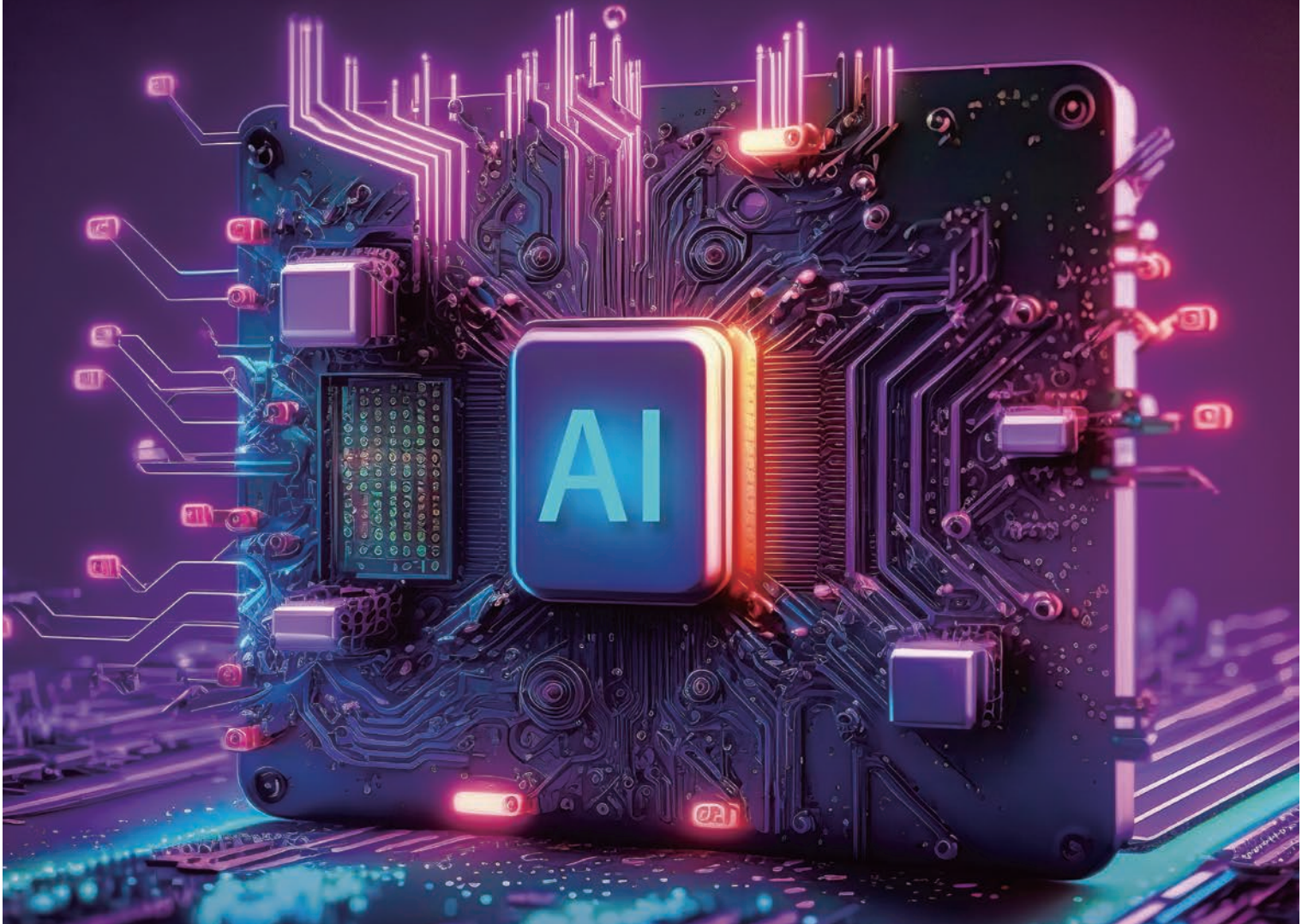


# CHANNEL



**초거대 AI 시대  
미래를 이끄는 파트너!**

삼성 



# 변화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주도하다! 미래를 함께 창조하는 혁신 파트너

초거대 AI(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상상 속으로 그려본 최첨단 기술들을  
이제는 우리 현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등을 생성할 수 있는 생성형 AI부터,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 모빌리티, 스마트홈,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일상에 AI 기술이 녹아 들어왔습니다.

올해 열린 'CES 2024'의 화두 역시 AI입니다.  
전 세계 혁신 기업들은 물론, 우리 기업들 역시  
AI를 접목한 미래 혁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초거대 AI 시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삼정KPMG는 우리 기업들의 혁신 파트너로  
미래 가치를 함께 창조해 가겠습니다.



## Control & Monitoring

We, Tongjin Image Stock, since commenced business in 1990, have been building from overseas countries to Korea and in around 45 channel partners.



## Connectivity

We, Tongjin Image Stock, since commenced business in 1990, have been building from overseas countries to Korea and in around 45 channel partners.



## Security

We, Tongjin Image Stock, since commenced business in 1990, have been building from overseas countries to Korea and in around 45 channel partners.



## Entertainment

We, Tongjin Image Stock, since commenced business in 1990, have been building from overseas countries to Korea and in around 45 channel partners.

INSU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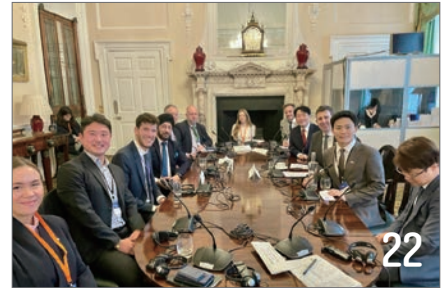
## INSURANCE

We, Tongjin Image Stock, since commenced business in 1990, have been building from overseas countries to Korea and in around 45 channel partners.



# CONTENTS

Vol  
**253**



## 건강한 성장

### 04 Emerging Trends

CES 2024를 통해 본 미래 산업 트렌드

### 08 Market Reader

미래 에너지 시장의 All-rounder 꿈꾸는 SMR

### 10 Team Story

AI 시대, 기업 성장과  
차별화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 AI센터

### 12 Client+

조선업 글로벌 No.1 HD현대중공업

### 14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 행복한 일터

### 16 55주년 특집 I

우리들의 대축제! 55th ANNIVERSARY  
People First Concert! 미리 보기

### 18 55주년 특집 II

KPMG 생활하며 가장  
기억에 남은 소중한 추억은?

### 20 인재양성소

졸업을 축하합니다!  
사회 첫발 내딛는 새내기 삼성인의 힘찬 포부

### 22 세계가 열린다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비즈니스 하기 좋은 나라, 영국

##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퍼스트 펭귄 (1st Penguin)

## 26 心 Care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걸까?

## 28 Samjong News

다양한 매체 리그테이블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 안아 외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http://home.kpmg/kr/ko/home.html)



# CES 2024를 통해 본 미래 산업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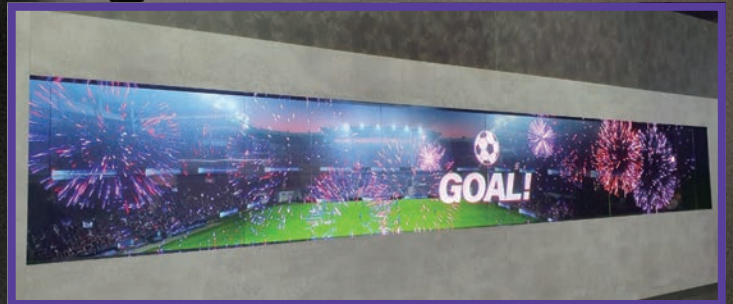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첨단 기술 트렌드를 조망할 수 있는 세계 최대 ICT 융합 전시회이다. CES 2024는 'All Together. All On.'이라는 슬로건하에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전 세계의 다양한 공통 과제를 해결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 올해 CES는 참가 기업 수가 4,000개를 넘었으며, 이 중 한국 기업은 772개 사가 참여하여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를 보였다.



현대자동차 - AI 기술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접목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탑승 경험을 제공하는 'DICE'



월마트 - 혁신 기술이 접목된 미래 매장



삼성전자 - 투명 마이크로 LED를 활용한 축구 중계 시현



SK그룹 - 7개 계열사 공동 전시관의 구체 LED 'Wonder Globe'



LG전자 - 투명 OLED TV 'LG 시그니처 OLED T'



## ‘공기 같은 AI’ 시대, 생성형 AI와 온디바이스 AI의 부상

CES 2024에서는 2022년 말 챗GPT의 등장과 함께 2023년을 뜨겁게 달궜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혁신 제품이 본격 등장하며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생성형 AI 기술이 도입된 제품이 공개됐다. AI 반도체 등의 제반 기술이 발전하며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한 디바이스가 출품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CES 2024를 기점으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접목해 이용자의 일상 속 어디에서나 AI를 경험할 수 있는 ‘공기 같은 AI’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기업으로 구글은 생성형 AI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하는 Magic Editor, Duet AI in Google Workspace 등의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삼성 SDS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업무용 협업 솔루션 ‘Brity Copilot’의 기능을 소개하는 세션을 진행했다. 비전 AI 기능을 접목한 LG전자의 리테일 광고 솔루션은 이용객의 연령대와 성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타깃별 맞춤형 광고를 표시하도록 시현해 주목 받았다. 온디바이스 AI 등 AI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주요 기술인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딥엑스가 AI 가속기 모델을 공개하는 등 AI 기반의 반도체 솔루션을 선보여 혁신상을 수상했다.

### 일상 속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 반경을 넓힌 로봇

로봇 분야에서는 AI 등의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복합적인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해 시선을 끌었다. 두산은 로봇 팔을 활용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성질을 파악하고, 카테고리별로 자원을 분류해 정리할 수 있는 분리수거 로봇 ‘오스카더스터’를 공개해 혁신상을 받았다. ‘오스카더

두산- 집계를 사용하여 자원의 성질을 분류하고 적합한 위치로 옮길 수 있는 로봇팔 기반 분리수거 기계 ‘오스카더스터’



스터’는 집계를 활용하여 제품을 눌러보고, 제품이 충격을 받는 정도에 따라 자원의 성질을 분류하여 카테고리에 맞는 위치로 제품을 이동하도록 설계됐다. 국내 로봇틱스 기업 테슬로는 12개의 관절로 구성되어 비정형 물체를 집는 기능이 우수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로봇 그리퍼를 공개했다. 위로로틱스는 주행보조를 위한 착용형 로봇 ‘WIM’을 출품했다. 허리와 다리 부분에 부착하여 이용자의 보행 편의성을 높여주는 기구인 ‘WIM’은 웨어러블 로봇을 산업 현장이 아닌 일상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명실상부 ‘라스베이거스 오토쇼’ 참가 기업 5곳 중 1곳이 모빌리티 분야

완성차 브랜드와 자율주행, 차량 소프트웨어(SW)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업체 719곳이 참가했다. 이는 지난해 참가한 300여 개 업체 수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올해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 오토쇼’의 명성을 유지했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약진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현대차는 기존 연료전지 브랜드인 ‘HTWO’를 현대차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로 확장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

현대차그룹의 독립 법인 ‘슈퍼널-도심에서 비행이 가능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S-A2’



길 ‘HTWO Grid’ 솔루션을 발표했으며, 현대차그룹의 독립 법인인 슈퍼널은 차세대 미래항공모빌리티(AAM) ‘S-A2’의 실물 모형을 최초로 공개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기아는 별도의 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원하는 목적에 따라 차체 모양을 바꿀 수 있는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기반차량) 모델인 PV5를 공개했으며, 현대모비스는 360도 회전하는 신개념 자동차 ‘모비온(MOBION)’을 출품하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LG그룹은 계열사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LG전자는 차 안에서 게임과 영화 관람 등을 제공해 이동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넘어서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차량 ‘알파블(Alpha-able)’을 최초로 공개했다. LG디스플레이는 57인치 필러투필러 LCD와 32인치 슬라이더블 OLED 등 미래형 차량용 디스플레이 기술을 공개했다.

이외에도 소니혼다모빌리티는 혼다의 내연기관차 노하우와 소니의 이미지 센서 기술력과 엔터테인먼트 노하우가 접목된 모빌리티 ‘아필라(AFEELA)’를 출품하면서 인포테인먼트 요소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마존도 고도화된 차량용 음성 AI 비서 알렉사(Alexa)가 탑재된 BMW를 선보이며 빅블러



(Big Blur) 현상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 스마트홈 '초연결' 돕는

####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홈 로봇 화제

스마트홈 분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스마트홈의 표준 플랫폼 기술을 접목한 '초연결'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했다. 타사 제품과의 연동성을 높인 국내 가전 업계의 스마트홈 플랫폼 활용성의 강화와 함께, 온디바이스 AI, 가정용 로봇 등의 스마트홈 생태계의 제품군이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홈 플랫폼 'SmartThings' 생태계를 강조하며 자체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파트너 기업의 제품을 소개했다. 테슬라와 연계하여 태양광 에너지의 저장 및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개했다. 세탁 코스를 알아서 설정하는 세탁기와 식재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냉장고, 저화질 영상을 고화질로 변환하는 기술을 탑재한 TV 등의 온디바이스 AI 기반 스마트홈 제품이 화제를 모았다.

LG전자는 세계 최초로 공개된 무선 투명 OLED TV인 'LG 시그니처 OLED T'를 전시장 전면에 배치했다. 화면을 투명하게 하는 투명 모드, 불투명하게 하는 블랙 스크린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투명 OLED TV는 무선 송수신 기능을 활용해 전원선 하나만 디바이스에 연결되도록 하여 투명 모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AI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와 자유롭게 교류하고, 자사의 스마트홈 플랫폼과 연계하여 가정 내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 '볼리'와 'AI 에이전트'를 공개했다.

### 웹3.0, 확장현실의 구현과

#### 메타버스 콘텐츠 다양화에 주목

메타버스와 웹3.0 분야에서는 확장현실을 구현하는 XR 디바이스와 메타버스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다양화가 주목됐다. 신경과학 기술, AI 기술 등이 접목되어 일상 영역에서의 확장현실 기술이 도입된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글래스 등이 선보였고, 인간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

는 디지털 휴먼 기술 등이 공개됐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해에 이어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인 칼리버스를 그래픽, 몰입감, 콘텐츠의 다양화 측면에서 개선하여 다시 CES 현장에서 소개했다. 현장에서 DJ가 공연을 진행하면 실시간으로 상단 화면에 마치 해당 DJ가 거대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메타버스 화면을 구현했다.

국내 스타트업 앙트러리얼리티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하면 해당 이미지를 기반으로 사람의 모습을 3차원으로 구현하고 애니메이션을 입혀 메타버스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아바타형 디지털 휴먼을 생성하는 솔루션 'Twinit'을 시연했다. 실감나는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공간 컴퓨팅 기업 어퍼런스는 신경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 촉감을 구현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팬텀을 공개하였으며, AR 글래스의 핵심 광학계를 개발하는 레티널(LetinAR)은 AR 화면을 안경에 나타낼 수 있는 핀 틸트 기술이 활용된 스마트 글래스 제품을 전시했다.

### 디지털 헬스케어, 일반 수요자 중심

#### 서비스로의 외연 확장...

#### 그 중심에는 AI 기술이 기반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환자 대상 의료서비스에서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이번 CES 2024에서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서비스가 치료를 넘어 예방 중심의 의료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미국 애보트(Abbott)는 환자 몸속에 삽입된 심박 측정기를 통해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심장 이상 증세를 곧바로 점검할 수 있



롯데정보통신-메타버스 플랫폼 'Caliverse'을 통하여 CES 현장의 DJ가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듯한 메타버스 영상을 시연



삼성전자-가정용 로봇 '볼리'(위)  
LG전자-가정용 로봇 'AI 에이전트'(아래)



## CES 2024 10대 트렌드와 미래 산업 발전 방향

<p><b>① AI(인공지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성형 AI 기반의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며 자연어 처리,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업이 확대됨</li> </ul>	<p><b>② 로봇</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기술 기반의 로봇의 등장 이여지며, 다수의 태스크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로봇의 서비스 제공 분야 확대가 이루어짐</li> </ul>	<p><b>③ 모빌리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기반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임박함에 따라 인포테인먼트, 커넥티비티가 주요 기능으로 부각</li> <li>차세대 미래항공모빌리티(AAM)의 등장으로 향후 모빌리티 생태계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li> </ul>	
<p><b>④ 스마트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화된 스마트홈 생태계를 채택하는 플랫폼이 확대되며 산업 생태계가 확장됨</li> <li>투명 디스플레이, 온디바이스 AI, 가정용 로봇 등의 제품이 화제를 모음</li> </ul>	<p><b>⑤ 메타버스 · Web 3.0</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경과학 기술, AI 기술 등이 접목되어 다양한 산업과 일상의 XR(확장현실) 환경에서 활용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글래스, 디지털 휴먼 생성 소프트웨어 등 공개</li> </ul>	<p><b>⑥ 디지털 헬스케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요자 중심, 맞춤형 의료, 예방 중심, 홈케어 등의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음</li> <li>AI 기술 활용 실시간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제품 다수 출시</li> </ul>	
<p><b>⑦ ESG</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경영으로 자리매김한 시대 속 CES 참여 기업은 비즈니스 전반의 ESG 전략 수립 및 실행을 강조</li> <li>CES 2023에 이어 CES 2024 테마로 '인간 안보(Human Security)' 부각</li> </ul>	<p><b>⑧ 푸드테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의 생산 단계인 스마트 농업부터 식품의 가공, 조리, 외식·배출, 보관, 음식물 폐기물 등 식품 전 밸류체인에 신기술 적용</li> <li>AI, 로보틱스, 생명공학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식품 산업 혁신 주도</li> </ul>	<p><b>⑨ 스페이스 테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D 프린터, 스마트폰 등 스마트 디바이스와의 연계를 통한 스페이스 테크 기술의 확대가 나타남</li> <li>위성으로부터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운스트림 산업에서 데이터의 새로운 활용 방식 모색</li> </ul>	<p><b>⑩ 스타트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스타트업의 비중과 영향력이 크게 확대</li> <li>AI 기술 중심의 상업용 제품 및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분야의 스타트업 참여가 부각</li> </ul>

### 미래 산업의 발전 방향은?

① AI의 전 산업 적용에 따라, AI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기업의 전략 실행 본격화

② 모빌리티와 첨단 기술의 하이브리드 고도화, 완성차 · 타산업의 co-work 가속화

③ 인간을 둘러싼 ESG·지속가능성 부상과 함께 고령화(Aging)로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

는 심박조율기를 출품하여 디지털 헬스 부문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미국의 가민(Garmin)도 웰니스, 피트니스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워치 베뉴 3(Venu 3)을 출품하여 스포츠 및 피트니스 부문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한국 기업으로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코골이 완화를 돕는 베개인 텐마인즈(10minds)의 모션슬립(Motionsleep)과 홈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라젼의 '마스터 메디컬 베드(Master Medical Bed)',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인바디의 LB트레이너, 인바디터치, LB코퍼레이트 솔루션 등이 눈길을 끌었다.

### CES 2024으로 본 미래 산업의 발전 방향은?

CES 2024에서 내다본 미래 산업의 발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AI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기업의 전략 실행이 본격화'될 것이다. AI를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접목하여 일상 속 어디에서나 AI를 경험하는 '공기 같은 AI'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일을 처리해주는 '앰비언트 인텔리전스(Ambient Intelligence)'를 기반으로 한 혁신 서비스의 출시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모빌리티 산업의 첨단 기술 도입이 확대되며, 완성차 업체가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타 산업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산업 고도화 및 경쟁 심화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오랜 기간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니즈를 첨단 기술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디지털 헬

스케어'가 어느 해보다 두드러졌다. AI를 비롯한 발전된 기술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접목되어 수요자 맞춤형 의료, 예방 중심, 홈케어 등의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된다. 혁신 기술의 활용 기준과 방침을 수립하는 데 앞으로 더욱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NTACT US

경제연구원 박도희 수석연구원  
Tel. 02-2112-0904  
E-mail. dohwipark@kr.kpmg.com

경제연구원 최창환 책임연구원  
Tel. 02-2112-7438  
E-mail. changhwanchoi@kr.kpmg.com



# 미래 에너지 시장의 All-rounder 꿈꾸는 SMR

2023년 8월, 미국 스리마일 섬 사고 이후 신규 건설 허가를 받은 최초 원전이 가동을 개시하며 원전 부활의 신호를 알렸다. 최근 원자력이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소형모듈원자로(SMR)가 대형 원전 대비 강점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발전뿐 아니라 수소 생산, 지역난방과 공정 열, 담수 생산, 그리고 우주 탐사 및 방산 등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SMR. 이번 호에서는 SMR의 다양한 활용과 성공적인 SMR 시장진출을 위한 고려 사항들을 제시한다.



## 넷제로 위한 하나의 Key, 원자력

미국에서 스리마일 섬 사고(1979년) 이후 신규 건설 허가를 받은 최초 원전 보글(Vogtle) 원자력이 가동을 개시했다. 보글 원자력의 상업 가동은 “미국 원자력 산업에 중요한 성과이자 전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을 발전시키는 이정표”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원자력의 역할이 다시 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의 강점은 첫째, 탄소 배출이 재생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인 청정에너지원이며, 둘째, 국내 정산단가(53원/kWh, 2022년 기준)가 발전원 중에서 가장 낮다는 점이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대비 기후, 입지조건 등 외부환경에 둔감한 덕분에 가격변동성이 적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우월하다.

즉,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전환’의 핵심 3요소를 충족하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 왜 특히 SMR일까?

최근 원자력 중에서도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SMR)이 대두되고 있다. SMR은 기존 원전 대비 적은 용량(300MW 이하)의 중소형·모듈형 원자로를 통칭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SMR의 경우 주요 배관의 용접 등 현장에서의 작업량이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건설공기가 짧아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초기 건설비용도 절감이 가능하고 민간 주도의 사업이 용이해진다.

아울러 피동형·일체형 안전설계로 사고 리스크도 크게 줄였는데, 안전성이 높아 수요자인 근에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부하 추종 운전이 용이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어 분산 전원에도 적합하다.

## SMR, 원전 크기는 작아지고

### 시장은 커지고

2030년도 상용화를 목표로 전 세계에서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SMR은 2040년까지

3,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80여 종의 SMR이 개발 중이며, 상용화 측면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원자로로는 중국, 러시아, 미국의 SMR로 평가된다. 이러한 SMR은 단순히 크기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SMR이 활용될 다양한 분야를 살펴보면, 첫째는 당연히 발전 부문을 들 수 있다. 산업용뿐 아니라 EV 충전소에서의 활용 등 상업용 발전에서의 활약도 기대되면서 발전 부문의 예상 수요는 2050년까지 51.5% 증가한 72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SMR은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 생산에도 사용된다. 한국 정부가 2050년까지 연간 2,790만 톤 청정수소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내 수소 가격은 여전히 비싼 수준이다. 이때, 저탄소 발전원 중 가장 저렴한 원자력을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SMR은 핵분열로 발생한 막대한 열에너지

## 2030년 상용화 시 기대되는 SMR의 다양한 활용도

### 왜 특히 SMR일까?



출처: 삼정KPMG 경제연구원



#### 발전

국내외 SMR 발전소 건설, O&M(운영 및 관리), 해체 발전용 SMR의 주기기 및 부품 수출 전기트럭을 위한 EV 충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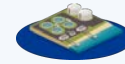
#### 수소 생산

다양한 수소 생산 및 생산 플랜트의 수출  
SMR 수소 공급망 구축



#### 지역난방, 공정 열

SMR 핵에너지의 열로 지역난방 공급  
산업 공정에 필요한 열에너지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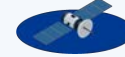
#### 담수 생산

SMR 핵에너지의 열로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한 담수 생산



#### 핵추진로켓, 핵추진우주선

SMR 핵에너지의 열로 추진체를 가열하여 로켓 및 우주선 발사



#### 위성, 우주기지

SMR 핵에너지의 열로 위성의 추진력을 얻거나 전기 변환을 통해 위성 및 우주기지의 전기 동력원으로 활용

로 난방을 공급하고, 공장을 돌리며,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비발전용 수요는 대형 원전에서 활용도가 낮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SMR은 우주 공간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핵추진로켓 사업 드라코(DRACO)를 민간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에 맡기면서 우주에서의 원자력 경쟁 시대를 알렸는데, 우주 개발 선도국이 핵추진로켓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원자력이 우주 탐사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 성공적인 SMR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그렇다면 성공적인 SMR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무엇을 검토해야 할까? 우선, SMR 첫 호기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현실적인 면을 감안하면 한국이 개발 중인 i-SMR의 경우 일단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첫 호기를 건설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향후 수출대상국 모색에 있어서는 경제성이 확보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석탄발전소를 원자력발전소로 전환할 경우 입지조건이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부지 확보, 건설 비용 등의 이점이 있다. 따라서 원자력과 석탄 발전 비중이 모두 높아 C2N(Coal to Nuclear) 프로젝트가 활발할 헝가리, 슬로베니아, 체코, 불가리아 등 동유럽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덧붙여, 한국형 원전에 대한 지적재산권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걸림돌 없는 해외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SMR 모델개발과 특허 확보가 필수적이다.

결국 SMR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이유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올라운더(All-rounder)'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이다. 앞으로 에너지 시장은 단순히 발전만 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멀티 에너지원을 요구할 것이다.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넷제로 달성의 도구로 원자력이 최종 합의문에 최초로 기재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앞으로는 SMR을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시장에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들이 창출될 것이며, 이를 선점하는 국가 및 기업이 패권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하기를 기대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CONTACT US

IM4본부 김연정 상무

Tel. 02-2112-0297

E-mail. yeonjungkim@kr.kpmg.com



경제연구원 임이슬 책임연구원

Tel. 02-2112-3918

E-mail. yeom@kr.kpmg.com



# AI시대, 기업 성장과 차별화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 AI센터

바야흐로 초거대 AI시대, 삼정KPMG는 기업들의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서비스를 엔드투엔드(End-to-End)로 제공하는 'AI센터'를 업계 최초로 신설했다. 이번 호에서는 AI 전략 수립부터 실행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AI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AI센터를 소개한다.

## AI센터 주요 서비스

**AI도입 전략 컨설팅:**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적용 과제 (Use Case) 발굴 및 AI 적용 로드맵 수립

**AI업무 효율화:** 생성형 AI, No-Code/Low-Code 등의 AI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자동화 및 지능화

**AI Finance:** 회계처리, 결산, 검증대사, 분석 및 예측 자동화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재무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AI내부통제:** AI 기반 이상 행위 사전탐지, 위험평가 분류 모형 등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지능형 내부통제 체계 구축

**AI거버넌스:** AI 규제 및 제약 하 안전한 AI 활용 및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및 운영모델 수립



업계 최초 신설된 AI센터!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웃음 짓고 있다.

## AI 도입, 작은 업무 범위부터 시작해야! 필요시 전문가 도움받는 것이 효율적

ChatGPT(챗GPT) 출현 이후 AI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초기에는 단순히 챗GPT 도입 등에 관심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①생성형 AI 기술과 업무 프로세스를 접목한 Co-Pilot을 기존 환경과 통합, ②클라우드 상용 LLM 활용 vs. 온프레미스 LLM 구축, 나아가 업무 성격별 멀티 LLM 검토, ③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정제, ④AI 운영 조직 구성, ⑤AI 보안 등에 대한 문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들이 AI 기술을 제대로 도입하고자 한다면, 작은 단위의 업무 범위부터 시작하여 단계마다 구체적인 목표에 맞는 데이터를 모아가며 보완하고 확대해 가야 한다. 또한, AI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AI 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는 적지 않은 비용과 각종 윤리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AI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AI 기술이 복잡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임을 감안할 때 AI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업계 최초 AI 전문가 그룹! AI에 관한 모든 서비스 제공

삼정KPMG는 기업들의 AI 도입 및 활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2월, 업계 최초로 'AI센터'를 발족했다. AI센터는 조재박 센터장을 중심으로 서비스 및 산업별 AI 전문가를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해 AI 도입 전략, 사례 발굴, AI 구축 및 실행, AI 거버넌스 수립까지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삼정KPMG AI센터는 컨설팅, 회계, 세무, M&A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AI 시대에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융복합/맞춤형 A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AI센터는 디지털 신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조직인 Lighthouse를 통해 고객 맞춤형 AI 서비스 내재화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KPMG Global AI 조직, 국내외 AI 솔루션사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폭넓은 AI 서비스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상황에 알맞은 최적의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AI센터 파트너들의 각오 한 마디!



**조재박 센터장**  
jaeparkjo@kr.kpmg.com

"업계 최초 AI센터를 중심으로 산업 특성과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고객가치 창출을 선도하겠습니다."



**이동근 전문**  
tongkeunlee@kr.kpmg.com

"AI센터의 서비스/산업 전문성 기반으로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송정화 전문**  
chunghwasong@kr.kpmg.com

"AI를 Finance, Tax 등과 접목하여 신규 사업 확대 및 내부 오퍼레이션 혁신에 기여하겠습니다."



**남윤철 상무**  
enahm@kr.kpmg.com

"제조/유통 등 다양한 산업 대상 AI 융합 기반 Value Chain 혁신을 통해 고객사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준기 상무**  
jlee199@kr.kpmg.com

"생성형 AI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와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AI를 통해 효과적으로 업무 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도하겠습니다."



**이지현 상무**  
janenelee@kr.kpmg.com

"고객사와 실제적인 AI유스케이스 도출부터 도입까지 직접 와닿는 가치를 만들며, 또한 AI 기술기업에 대한 M&A 투자 자문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뢰받는 AI파트너로 시장 선도할 것

AI센터는 기업들의 신뢰받는 AI파트너로서 시장을 선도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가고자 한다. 앞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AI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업무에 도입할 것인지 방향성을 설정하고, 실제 적용을 통해 효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업의 니즈를 지원하기 위해 삼정KPMG AI센터는 AI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 및 가치를 창출하여 국내 AI 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 조선업 글로벌 No.1 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이상균)은 지난 1972년 창립된 이래 창사 10년 만에 세계 1위 조선소로 발전하며, 불굴의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으로 조선산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 이끌었다.

HD현대중공업은 친환경·디지털 분야에서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간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 스마트 조선소 분야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하면서 미래 선박 분야에서 절대 격차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1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조선소 '트윈포스(TWIN FOS)'를 통해 조선소 공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있는 모습 2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3 HD현대중공업의 조선소 전경 4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0년 인도한 17만 4천 입방미터급 초대형 LNG운반선

###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3년 연속 수주 목표 초과 달성하며 선도기업으로 우뚝**

지난해 HD현대중공업은 총 56척의 선박을 수주했으며, 이 중 1척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친환경 연료 추진 사양이 적용됐다. 앞서 지난 2022년과 2021년에도 HD현대중공업은 LNG운반선, LNG 추진 컨테이너선,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연간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해 7월에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0차 회의에서 기존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50% 저감 목표를 탄소중립(Net-Zero) 달성으로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견조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암모니아(NH3)는 탄소(C)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연소 시 이산화탄소(CO2)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연료로, 현재 대세인 LNG추진선에서 향후 '수소 선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선박이 징검다리 역할로 꼽히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1년부터 대형 엔진 원천기술보유사인 MAN Energy Solutions社와, 2022년부터 WinGD社와 협력해 암모니아 대형 엔진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HD현대에서 개발하는 암모니아 대형 엔진은 올해 말을 목표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 **디지털 기술 집약시킨 스마트 조선소 구축해 생산 현장 낭비 제로(0) 달성 목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미래 첨단 조선소(Future of Shipyard, 이하 FOS) 프로젝트의 1단계 목표인 '눈에 보이는 조선소를 완료하며,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HD현대중공업은 2026년까지 2단계 '연결-예측 최적화된 조선소', 2030년까지 3단계 '지능형 자율 운영 조선소' 구현을 위해 박차를 가해 생산성 30% 향상, 공기 30% 단축, 낭비 제로(0)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FOS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

해 독일 지멘스(SIEMENS), 미국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적극적으로 협업에 나서고 있다.

### **수상함 1위 HD현대중, 차세대 방산 선도**

K-방산의 명성을 펼치고 있는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최대 수상함 건조실적과 국내 최대 함정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1975년 한국 최초의 전투함인 '울산함' 개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지스함 5척, KDX-II 구축함 3척, 호위함 12척, 초계함 6척, 잠수함 9척, 경비·구난함 31척, 지원함 7척, 수출함 14척 등 총 102척의 최첨단 함정을 건조하며 방산분야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08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최신예 기술이 적용된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건조해 해군에 인도한 바 있으며, 이후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함(KDX-III Batch-II) 3척을 모두 수주하였다. 이 중 선도함인 '정조대왕함'은 올해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의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조감도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산업은 물론 AI 기술을 탑재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AI 서비스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을 칭하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이번 호에서는 시로 인해 탄생한 신조어들을 살펴본다.

## AI 기술을 능숙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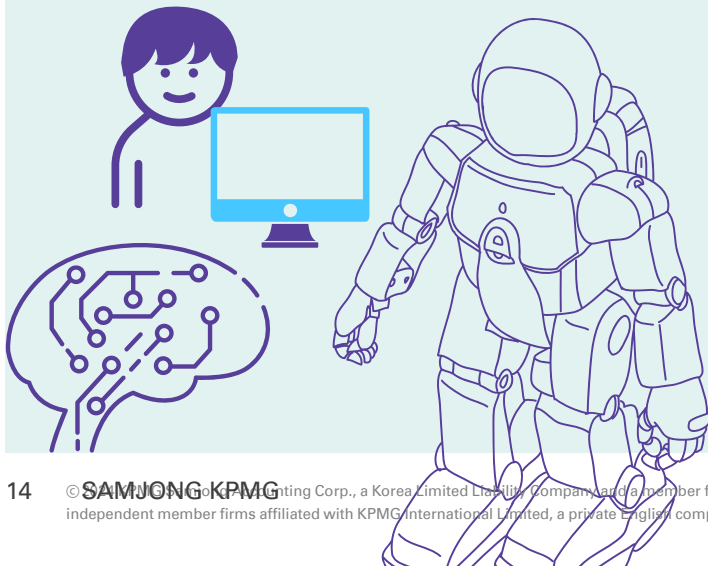
### ‘호모 프롬프트’

(Homo Prompt)

호모 프롬프트는 AI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창의성과 결과물의 질까지 높이는 사람을 의미해요! 인류를 뜻하는 ‘호모’와 사용자의 지시와 결정, 명령어를 뜻하는 ‘프롬프트’가 합쳐져 탄생한 말이지요. 대표적인 예로 ChatGPT와 같은 대화형 AI 기술 등을 활용해 우수한 콘텐츠를 탄생시키는 사람을 호모 프롬프트라 칭할 수 있어요. 필요한 해답을 AI 기술을 통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인간이 시를 만들었다면, 시는 호모 프롬프트를 낳은 셈이지요.

최근 사용자가 본인이 원하는 해답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적합한 질문을 생성형 AI에 제시하는 질문 능력과 시가 생성한 답안을 보완해낼 수 있는 문해력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물론 고도화된 AI 기술이 스스로 질문에 답하고 정보를 찾으며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나 때문에 그 역할이 점점 더 강조될 것으로 보여요.



## 거세게 부는 AI 바람!

### ‘스마트 선박’

(Smart Ship)

국내 조선업계에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면서 스마트 선박 바람이 거세지고 있어요.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 빅 3(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사업장에 스마트 전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요. **건적부터 인도까지 선박 전체 건조 과정에서 AI를 적용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에요.**

HD한국조선해양은 현재 추진 중인 ‘미래 첨단 조선소(FOS)’ 프로젝트의 1단계 목표인 ‘눈에 보이는 조선소’를 완료했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조선소의 핵심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조선소 ‘트윈포스’인데, 가상공간에 실제 조선소를 3D 모델로 구현한 디지털 플랫폼이에요.

한화오션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1조5,000억 원 중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2,4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 하네요. 이미 조선 공정에 쓰이는 로봇을 개발, 발전시키고 있으며, 직원들의 효과적인 숙련도 훈련을 위해 가상현실(VR)을 이용한 선박 블라스팅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어요.

삼성중공업은 업계 최초로 건적부터 제품 인도까지 선박 건조 과정(EPC)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사물인터넷과 AI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고 컨트롤하는 ‘전사 통합모니터링 시스템(SYARD)’을 개발했다고 해요.

업계에서는 스마트 조선소 구축 최종 완료까지 빨라도 5~7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기술 개발 및 최적화 과정을 고려하면, 2030년이 되어야 스마트 조선소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선박 건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 행복한 일터 Happy Workplace



## 55주년 특집 I

우리들의 대축제! 55th ANNIVERSARY  
People First Concert! 미리 보기

16

## 55주년 특집 II

KPMG 생활하며 가장  
기억에 남은 소중한 추억은?

18

## 인재양성소

졸업을 축하합니다!  
사회 첫발 내딛는 새내기 삼정인의 힘찬 포부

20

## 세계가 열린다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비즈니스 하기 좋은 나라, 영국

22

## 이동규의 두줄칼럼

퍼스트 펭귄 (1st Penguin)

24

## 心 Care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걸까?

26

## Samjong News

다양한 매체 리그테이블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 안아 외

28



## 우리들의 대축제! 55th ANNIVERSARY

# People First Concert! 미리 보기

KPMG Korea 55주년을 맞이하여 People First Concert가 5월 16일에 개최된다. 특별히 구성원들의 참여로 만들어질 행사로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미리 People First Concert를 엿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 # 함께 만들어 가는 우리 모두의 축제!

KPMG Korea는 1969년 글로벌 회계법인 가운데 최초로 한국에 진출해 한국 경제의 발전과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KPMG Korea 55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5월 People First Concert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콘서트는 삼정KPMG 구성원은 물론 가족과 지인을 초청하여,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 갈 행사라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무엇보다, 열띤 환호와 함성으로 하나 되었던 KPMG Korea 50주년 기념 콘서트 이후 열리는 Big 이벤트로 더욱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 #언제, 어디에서 개최하나요?

오는 5월 16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People First Concert가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임직원은 물론 그 가족과 지인까지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다. 임직원들이 펼치는 무대부터, 전 세계로 뻗어가는 K-Pop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으로 준비된다. 이외에도 푸짐한 상품이 준비된 럭키 드로우 등 다채로운 식전 행사까지 마련되어 큰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 **일시:**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 **장소:** KSPO DOME(올림픽 체조경기장)
- **참가 대상:** 삼정KPMG 임직원 및 가족, 지인 등

\*우리만의 소통 앱 K-People에도 People First Concert 메뉴가 오픈되었으니, 다양한 정보는 K-People에서 확인하자!



## 임직원 3대 이벤트 전격 공개!

# 01

## KPMG'S GOT TALENT “당신의 재능으로 KPMG를 감동시켜라!”

‘People First Concert’에서는 삼정인들의 다재다능한 끼를 뽐낼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듬하여, KPMG'S GOT TALENT! 노래, 춤, 마술, 연기, 뮤지컬 등 삼정인들의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뽐내고, 웃고 즐기는 시간을 통해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다. 참가는 간단하다! 개인 혹은 팀으로 이뤄진 삼정인들이 만든 영상을 업로드하여 예선에 참가한다. 이 영상은 임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정되어, Top 4를 선



정한다. Top 4로 선정된 삼정인들은 무대에 오를 자격을 얻고, 선보인 공연을 통해 현장 투표를 거쳐 1~4위 순위를 결정짓는다. 무대에 오를 Top 4는 특전으로 전문가 트레이닝도 제공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1위는 1,000만 원, 준우승 500만 원, 3위 300만 원, 4위 200만 원이라는 상금도 준비되어 있으니, 본인들만의 무대로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은 삼정인들은 서둘러 참가하기를 바란다.

# 02

## 임직원 합창단 “아름다운 하모니의 향연!”

50주년 행사에 이어, 55주년 콘서트에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합창단 무대를 펼친다. 지난 KPMG Korea 5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는 50명의 임직원 합창단원이 전문 지휘자의 지도 아래 약 두 달간의 연습 끝에 감동의 하모니를 완성한 바 있다. 올해도 55주년을 기념하며 임직원 합창단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55주년을 축하하며, 감동의 하모니를 만들어 내고 싶은 삼정인이라면 오는 3월 공유될 모집 공고를 참고하자!



2019년 KPMG Korea 5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합창단의 공연 모습

# 03

## 투표로 선정될 K-Pop 가수들의 화려한 공연!

전 세계가 주목하는 K-Pop!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K-Pop 가수들의 멋진 공연이 아닐까? 특히 삼정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들로 무대를 꾸미기 위해, 직접 초대 가수를 선정하는 투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수들 역시 아이돌부터 밴드, 힙합 등 다양한 장르로 마련될 예정이다. 삼정인들의 최애 가수를 무대에서 만나고 싶다면, 2월 말에 공지될 내용을 필히 살펴보고 투표에도 참여해보자.



2019년 KPMG Korea 50주년 기념 콘서트 공연 현장



# 우리 함께라서 행복해! KPMG 생활하며 가장 기억에 남은 소중한 추억은?

‘삼정인톡’에서는 KPMG Korea 55주년을 맞이하여 KPMG와 함께해온 날을 회상해 보려 한다. 즐거웠던 일, 기뻐했던 일 등 소중한 간직해온 법인에서의 추억을 보내온 삼정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애사심을 느끼며, 첫리크루터 활동 순간 권혁준 Associate (ICE3)

KPMG에서 생활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2023년 첫 리크루터로서 활동한 순간입니다. 회계사 수험기간 선배님과 친구들에게 들어왔던 KPMG는 저에게 동경의 대상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동경하던 회사에 마침내 입사해 리크루터로 활동하다니...! 이제는 ‘나의 회사’가 된 KPMG를 마음껏 자랑하고 입사를 장려할 수 있는 활동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가슴 한구석이 뛰는 것 같네요. 하하. 선배 회계사님과 동기들과 함께 ‘우리의 KPMG’를 자랑스러워하며 KPMG의 일원이 되어 정말 뿌듯했던 순간입니다.

## 2박3일간의 입문 교육!

박상은 Analyst (Deal Advisory3)

소중한 추억을 회상해 보니, 지난해 9월 곤지암 리조트에서 진행된 2박 3일간의 신입회계사 입문 교육이 떠오릅니다. 사원증을 받고 사진을 찍으며 비로소 삼정인이 된 것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앞으로 삼정인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멋진 회계사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과 잃지 못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수습시험 마치고 떠난 속초 MT!

이준석 Analyst (Deal Advisory9)

본부 동기들과 함께 1년 차 수습시험을 마치고 속초로 MT를 다녀왔던 추억이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데면데면하기도 하고, 학교가 아닌 회사에서의 동기라는 개념이 낯설기도 했으나 점점 업무를 같이 하며 친해지고, 서로에게 배울 점도 많다는 걸 느끼면서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는 실감이 들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 두 달간 ADC 인턴 활동 추억

김해민 Analyst (Deal Advisory1)

2022년 겨울, ADC 인턴으로 입사했던 두 달입니다. 2022년 ADC 인턴 당시 정유진 팀장님의 8명의 팀원들은 유독 끈끈하여 자주 모이곤 했습니다. 당시 유예생이었던 저희는 퇴사 후에도 함께 공부하는 등 여전히 친분을 이어갔고,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무려 5명이나 삼정KPMG로 돌아왔어요. 인턴 당시의 즐거웠던 추억 덕분에 각 삼정KPMG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입사 후에도 등산, 계곡, 집들이 등 자주 모이며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어요. 이를 통해 서로의 고충을 공유하며 힘든 시즌 기간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서로 모르는 일을 물어보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입사1주년 기념하며, 법인 콘도 예약으로 스키장을 이남경 Consultant (SG)

최근에 입사 1주년을 기념해서 동기들과 함께 스키장에 다녀왔습니다! 다 같이 법인 콘도 예약을 신청했는데, 운 좋게도 한 분이 당첨되셔서 비발디파크 숙소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동기들이랑 같이 스키도 타고, 볼꽃놀이도 보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한, 입사 1주년을 기념해서 본부 분들이 축하 케이크를 해주셨는데, 케이크를 숙소에서 사진도 찍고 나눠 먹으면서 1년간의 소회를 나눴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2024년을 나아갈 힘도 얻고 저희끼리 유대감도 돈독해진 것 같아요!

## Talk+Play+Love로 일이 아닌 취미를 함께 즐기며! 주혜빈 Associate (ICE3)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Talk+Play+Love' 프로그램에 당첨되어 팀 회계사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회계사님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특별히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일이 아닌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체험하면서 회계사님들의 인간으로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 회계사님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축구장에서 열렸던 대단함의 본부 워크숍! 신정은 S.Senior (IM2)

독섬유원지 축구장에서 본부 워크숍으로 체육대회를 진행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진행 종목은 색판 뒤집기, 단체 줄넘기, 전략 줄다리기, 협동 제기차기, 페널티킥(토너먼트)으로 총 5가지를 진행했는데 팀 호흡과 협동이 중요한 경기로 워크숍을 통해서 본부 회계사님들과 더 친밀해질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씨도 쾌청하고, 바람도 적당히 선선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유익했던 IM2 워크숍이었습니다!



## 8개월간의 프로젝트 소개 순간! 임충운 S.Consultant (MC1)

지난해 송년회 자리에서 8개월간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발표하며 보람을 느낀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본부장님, 파트너님을 비롯 팀원들에게 프로젝트 진행 경과 및 결과에 대해 직접 소개 후, 팀원들에게 "고생했다, 잘했다, 재밌겠다" 등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입사 이후 최초의 경험이었습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 사회 첫발 내딛는 새내기 삼정인들의 힘찬 포부

2월은 졸업의 달이다. 삼정KPMG는 빛나는 졸업장을 품에 안은 삼정인들의 졸업을 축하하며 상품권 선물을 건넸다. 이번 호에서는 대학 시절을 뒤로하고, 사회인으로서 새로운 시작에 나선 새내기 삼정인들의 힘찬 포부를 들어본다.



##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법인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회계사 될 것

### 한수민 Associate (IM2)

평생 스무살, 평생 대학생으로 살고 싶었는데 6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갔네요. 입학 후 2년은 멋모르는 새내기로 후회 없이 놀러 다니고, 2년 6개월은 후회 없이 공부하고, 남은 1년 6개월은 입사 전 하고 싶던 일들 다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다시금 돌이켜봐도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는 걸 보면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대학교라는 한 집단 내에 6년간 속해 있으면서 소속 집단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 중요성을 알게 되어서인지 삼정KPMG라는 발전하는 집단에 함께하게 된 것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자'가 좌우명인데, 첫 시즌을 맞이한 지금, 어려운 부분들도 많지만 그만큼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헤쳐 나가겠습니다.



대학 시절, 봄 햇살 맞으며



입사 후 동기들과 V(브이)

## '한 우물만 파자' 일 잘하는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

### 손우진 Associate (ICE3)

저는 10년 만에 졸업하게 되었는데, CPA 수험 생활을 포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오랜 기간 방향을 하다 이제서야 졸업을 하고 어엿한 직장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 기쁩니다. 졸업이 늦어지다 보니 사회생활을 좀 늦게 시작한 감이 있지만, 대학교 때처럼 철부지로 살지 않고 사회인으로서 전문가적 품위를 유지하며 품격 있고 교양 있는 회계사로 살아야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제 좌우명은 '한 우물만 파자'입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삼정KPMG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계속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멋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도 동의하기 때문에 5년 후, 10년 후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지는 모르지만 당장 현재로서의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입사 후 동기들과 함께

##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능력을 믿고 꾸준히 발전하는 전문가로

### 류호균 Associate (Tax2)

7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시원섭섭합니다. 정말 좋은 동기들을 만났고, 동아리 활동 등 많은 추억을 만들고 졸업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해요.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보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이제는 삼정KPMG의 한 구성원으로서 학교를 더욱 빛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세법을 좋아해서, 삼정KPMG Tax본부에 지원했고, 배움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의 좌우명은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슬럼프나 번아웃 등 폼은 떨어질 수 있지만, 제가 가진 클래스는 이로 인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진 능력을 믿고 발전시켜 클래스를 보여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업무에 더욱 적응해서 Tax 전문가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 주어진 일에 충실히 임하여 성장 이룰 것!

### 박지우 Analyst (Deal Advisory9)

지나고 보니, 저의 대학 생활은 순식간에 지난 듯해요. 다양한 인연을 만나 즐거운 학교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는, 대학 생활 자체를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환 학생도 다녀오고 그때가 제 인생의 최고점이라 생각이 들 만큼 행복한 날들도 보냈어요. 학생으로 지내온 나날이 마무리됨에 아쉽기도 하지만, 앞으로 삼정KPMG에서 마주할 다양한 경험을 생각하면 설레기도 해요.

저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자'를 마음에 품고 지내는데요, 배움에는 시기가 있고, 사회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역할을 책임감 있게 다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기를 놓쳐 후회하지 않도록 주어진 일에 대해 충실히 임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경험하고,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



대학교 졸업 사진, 꽃다발을 품에 안고서



선물 같은 대학 시절을 뒤로하고!

## '매 순간이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감사함을 잃지 않고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할 것!

### 이유림 Consultant (Digital)

대학 생활은 선물 같은 시간으로 남아있어요. 학과 동기들은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 되었고, 동기들과 함께 밤을 새며 공부하면서도 즐길 땐 즐기면서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어요. 대학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이제는 삼정KPMG라는 새로운 울타리에서 제 첫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특히 학교에서 전공으로 배운 것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 의미가 깊어요. 삼정KPMG에서도 앞으로 만나게 될 소중한 동료들과 새롭게 배우고 겪게 될 다양한 경험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매 순간이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인간관계, 다양한 경험, 환경 등 많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동기부여를 얻고 있어요. 신입 컨설턴트로서 앞으로의 경험 속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고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업무와 삶을 책임감 있게 이어가며, 성장해 가겠습니다!



#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비즈니스 하기 좋은 나라, 영국

Channel에서는 '세계가 열린다' 칼럼을 통해 전 세계 KPMG Office에 파견 중인 현지 전문가들에게 각국의 생생한 비즈니스 트렌드와 현지에서 주목하는 이슈, 경제 상황 등에 대해 들어보려 한다. 그 첫 순서로 2022년 7월 말부터 영국 Korea Desk에 파견 중인 문종우 S.Manager를 통해 영국의 현재 상황과 이슈 등에 대해 알아본다.

글 영국 Korea Desk 문종우 S.Manager E-mail jongwoo.moon@kpmg.co.uk



## # 외국인 투자에 안정적이고, 투명해!

영국은 World Bank에서 공개하는 Ease of Doing Business 순위에서 8위를 기록한 바 있다. 유럽의 경우, 덴마크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영국이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던 것은 소수 투자가 보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부문은 기업 투명도, 기업 소유 및 통제 등 투자 위험도와 관계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으로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DBT, 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 는 영국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로 안정성, 투명성, 영향력을 꼽고 있다. 또한 유니콘 기업 수 세계 4위, 유럽 내 1위로 질 높은 노동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법, 제도적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한·영 관계는 보다 격상된 파트너로서 안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긴밀한 관계로 도약하고 있다.”

- 1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서 축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 2 한·영 비즈니스 포럼 현장에 참석한 문종우 S.Manager
- 3 한·영 비즈니스 포럼 현장에서
- 4, 5 주말을 이용해 영국 명소를 관광하며!





2020년에 발표한 2050년까지 Net Zero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10 Point plan 이래 기후 변화에 있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으며, Net Zero는 영국 정치, 경제 사회의 여전한 화두이다. 다만, 지난해 9월 내연 기관 신차 판매와 가정용 가스보일러 판매 금지 계획을 기존보다 5년 늦춘 2035년으로 발표한 이후 ESG의 정치화 혹은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그린래시(Greenlash)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정부의 장기 계획에 맞춰 준비해 온 기업들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불만을 토로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난히 선거가 많다는 2024년에 영국도 하반기 총선이 예상되어 그 결과에 따른 변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과영국, 긴밀한비즈니스관계로도약

찰스 3세 국왕의 즉위 후 첫 국민 방문이었던 지난해 11월, 다우닝가 합의를 비롯한 양국의 대규모 투자협약으로 한-영 관계는 보다 격상된 파트너로서 안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긴밀한 관계로 도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 반도체 협력 MOU, 청정 에너지 파트너십, 원전협력 MOU, 해상풍력 MOU, 방산 공동수출 MOU 등이 정부 간 체결됐으며, 기업기관 간에는 에너지, 인공지능(AI), 방산, 바이오, 금융 등 첨단산업 분야로까지 양해각서 범위가 확대



3

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의 진출 혹은 추가 투자가 예상된다. 후속 협의를 통해 발표될 개선사항과 진출 시 혜택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제 혜택으로는 R&D 인센티브, 특허 Box 제도, 자유무역항과 투자지구에 따른 혜택 등이 있지만 2026년까지 이뤄지는 자본적 투자에 대한 100% 세액감면 등 관련 사항도 투자 의사 결정에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다.

### #영국 진출 어떤 준비 필요할까?

영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은 없으며, 영국 및 외국 투자자는 법에 따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영국 경제에 참여할 수 있고, 외국기업의 지분이 제한되는 산업 영역도 없다. 다만, 외국투자기업이나 내국기업 모두 독과점 관련 규제를 받아야 하며 영국 안보나 경제에 중요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영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분야의 기업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인수합병이 늘어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사하고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국가보안 및 투자법(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특정 산업군에서 인수합병 시, 사전신고가 필수이며 그 외 부문은 자발적으로 신고를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팬데믹 종료 이후에도 화상 회의 빈도가 매우 크다. 온라인 미팅에서 대부분 카메라를 켜고 상대 얼굴을 보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다. 특히, 이메일로 설명된 내용도 짧게라도 얼굴을 보며 재확인하는 관례가 있다.



4



5

### 영국 Korea Desk



영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설립에서 청산(Liquidation)에 이르기까지, One 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계, 세무, 컨설팅에 관한 서비스는 물론, 양국 간의 직간접투자에 함께 기회를 찾아 성장의 동반자로 나아가고 있다. 영국 전역 21개의 오피스에 근무하는 약 1.5만 명의 전문가와 협업하여 영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이슈 등을 기업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2023년에 영국 Korea Desk는 전년도 대비 64% 성장한 약 2.3백만 파운드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기업들과 함께 성장을 이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 용감한 펭귄을 보라  
펭귄처럼 도전하라”

## 퍼스트 펭귄 (1st Penguin)

펭귄 하면 우선 뒹뒹뒹 걷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날지 못하는 새란 연민이 떠오른다. 그래서인지 영화, 연극, 소설, 만화 등 조직문화적 스토리 묘사에 있어 펭귄은 세계적인 단골 배우다. 실제로 펭귄은 알려진 이미지와는 달리 똑똑하고 충직한 새다. 특히 자식 사랑은 눈물겹도록 희생적인 동물이다. 그러나 보통은 그들만의 엄격한 조직질서 유지 내지 권위적이며, 관료적이며, 배타적이고, 서열 위주의 틀에 박힌 듯한 엄격함을 두고 창의성과는 거리가 먼 회사형 인간, 넥타이부대에 자주 비유되기도 한다.

### # 펭귄과 공작새

『펭귄나라로 간 공작새』는 1955년 발간된

이후 아직까지도 경영우화 중 베스트셀러로 손꼽히고 있는 책이다. 내용은 자유분방하고 재기 발랄한 공작새 ‘페리’가 권위적인 ‘펭귄나라’에 스카우트되어 그곳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특히 변화, 혁신 등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온 것들에 대한 생생한 비판과 함께 전통적인 조직문화와 개인 창의성의 공존이라는 난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직장, 학교, 거리, 지하철 어디에서고 펭귄은 존재한다. 심지어 내 자신 속에도 펭귄이 살고 있다. 공작새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던 때를 생각해보면 세련되고 경험으로 무장된 자신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

끼기도 하지만, 전체 모습은 어느덧 전형적인 펭귄의 모습(펭귄쉽)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된다. 결국 내 안에 남아있는 죽은 공작의 시체와 날아오르다 포기한 많은 종류의 새들의 깃털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펭귄은 나쁘고 공작새는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르다(Different)'는 것과 '틀리다(Wrong)'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 # 퍼스트 펭귄을 보라

'퍼스트 펭귄(1st Penguin)'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카네기멜론대학의 컴퓨터공학과 랜디 포시(Randy Pausch)교수가 만든 단어다. 일반 대중에게는 사후 출간된 『마지막 강의(The Last Lecture)』를 통해 널리 알려진 용어다.

펭귄에게 있어 추운 바다는 먹이(전복 등)를 구할 수 있는 장소이자 바다표범 같은 공포의 천적에게 죽을지도 모르는 공포의 장소다. 이 때문에 펭귄 무리는 바다에 들어갈 때 머뭇거리는데, 이럴 때 한 마리가 먼저 바다에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도 자극을 받아 두려움을 이기고 잇따라 뛰어든다.

그 결과 오늘날 퍼스트 펭귄은 선구자, 도전자의 의미로 사용되는 관용어가 되었다. 조직 내에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조직에 큰 영향력을 주는 구성원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이 말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담대한 도전 정신이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가치 있는 학습 과정이자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이다.

### # 펭귄을 위한 변명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펭귄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고집스러운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알고 보면 다르다. 사실 펭귄이 날지



못하게 된 이유는 남극의 먹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날개가 지느러미로 최적 진화하였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록 자케 감독의 영화 <펭귄-위대한 모험>은 남극에 서식하는 황제펭귄 가족의 감동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짝짓기 시기가 되면 그들은 각자 바다에서 나와 '오모크'라 불리는 은밀하고도 신비한 장소로의 기나긴 여행을 시작한다. 알을 낳느라 지친 어미는 알을 수컷에게 맡긴 후 자신의 영양 보충과 태어날 새끼에게 먹일 먹이를 구하러 다시 바다로 떠나고, 수컷은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2개월 이상 굶주리며 동면 상태로 알을 품는다. 드디어 알이 부화되면 다시 아버지는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떠나고 어미는 알에서 나온 새끼를 키운다.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에 살아남은 새끼들이 독립하게 되면 펭귄가족들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마지막 여정에 오른다.

이렇게 본다면 펭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자체가 편견이요, 변화 거부인 셈이다. 정작 문제는 우리 자신의 인식과 태도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펭귄인가 공작새인가?

### ▶▶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로 최근 출시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지문(Thinkprint)』 저자이자 초대형 교보 광화문출판 선정 작가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근본원리를 비롯하여 경영 각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언어의 쇼츠 형식으로 풀어낸 독창적인 초미니칼럼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AI 시대 인간만의 생각품질을 높이고 영감을 주는 지적 아포리즘 결정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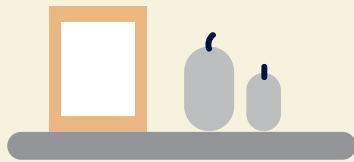


## 사회적 민감성을 제대로 바라보기

#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는 걸까?

친한 사람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조언,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하면 신경이 안 써지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쓴다는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 장점이 될까? 단점이 될까? 신경 쓰기의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함’과 관련하여 하기 쉬운 오해와 그 진실에 대해 알아본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안테나가 많이 발달한 것이다. 이는 키가 크고 작고, 피부 빛이 밝고 어두운 것처럼 유전적으로 보유한 성질로 타고난 기질이다.”



다른 사람의 말, 태도, 기분,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얼마나 민감하고 영향을 받는지를 의미하는 심리학적 지표는 '사회적 민감성(타인 민감성이라고 칭하기도 함)'이다. 타인의 말, 태도, 표정은 사회적 보상 신호다. 이 사회적 보상 신호, 즉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민감성이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반응이 좋은 행동을 지속하게 되고, 동시에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보상 신호를 보내기에 감정이나 표정이 풍부한 경우가 많다. 반대로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사람이라면 타인의 반응이나 압력에 둔감한 편이어서 주변의 영향을 덜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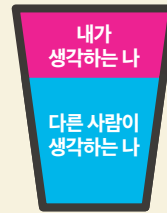
사회적 민감성은 타고난 기질이다. 키가 크고 작고, 피부 빛이 밝고 어두운 것처럼 유전적으로 보유한 성질이어서 기본적인 토대를 뜯어고치기는 어렵다. 얼핏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것은 흔히 MBTI에서 말하는 감정형(F)과 유사하고,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것은 사고형(T)과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민감성은 감정이 얼마나 우세한지가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및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기분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안테나가 많이 발달한 것으로 생각하면 좋다.

### # 오해 1 | 다른 사람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다?!

유감스럽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것(다른 사람을 많이 신경 쓰는 것)과 자존감은 완전 다른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 특성이 아직 많은 편이어서 한 개인을 구성하는 자존감에 다른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에, 그 중에서도 부정적 반응에 대해 더 쉽게 영향을 받기에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의 자존감



###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의 자존감



### # 오해 2 | 다른 사람을 신경 안 쓰고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은 사회성이 부족하고 비호감이다?!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잘 안 받는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사람들은 대체로 감정적 폭이 크지 않다 보니 상대방에게 둔감한 경우도 많고, 친밀한 관계여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을 선호한다. 그럼에도 상대방과 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친사회적인 행동의 예시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적 행동, 자신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 행동, 상대방에게 과하게 엄격하지 않고 너그러운 행동이 있다.

### #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이들을 위한 심리건강 팁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잘 형성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성향이 과해지면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쓰게 되거나 자칫 눈치를 보는 행동으로 비쳐질 수 있고, 대체로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더 큰 편이다.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의 대인관계적 상황과 무관하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진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자주 던질 필요가 있다. 세상을 향해 많이 쏘는 안테나의 일부를 종종 나의 내면으로 돌려준다면 사회적 민감성의 장점을 더욱 풍요롭게 발휘할 수 있으리라.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 SAMJONG NEWS



## 다양한 매체 리그레이블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 안아 M&A 재무자문상 & 회계자문상 수상

삼정KPMG가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진행하는 M&A 리그레이블 시상식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삼정KPMG는 지난 1월 15일 연합인포맥스가 주최한 '제13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에서 'M&A 재무자문상(연합인포맥스 사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 2월 1일에는 한국경제가 주최한 '제15회 한국 IB대상'에서 M&A회계자문상(한국경제신문 사장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1월 24일에는 딜사이트가 주최한 '제2회 딜사이트 IB 대상'에서 'M&A 회계자문 부문 베스트하우스상(딜사이트 대표이사상)'을 수상했다. 삼정KPMG는 다수의 대규모 M&A 거래에 회계자문을 제공한 데다 특히 부동산매매 자문 실적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지난 1월 26일에는 더벨이 주최한 '2024 Korea Capital Markets League Table Awards'에서 'Best M&A Buyer'로 선정됐다. 회계자문 부문에서 삼정KPMG가 작년보다 훨씬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제13회 연합인포맥스 금융대상' M&A 재무자문상 수상



# '제2회 딜사이트 IB대상' M&A 회계자문 부문 베스트하우스상 수상



# '2024 Korea Capital Markets League Table Awards'에서 'Best M&A Buyer' 선정



# 한국경제 '제15회 한국 IB대상' M&A회계자문상 수상

## 롯데의료재단과 함께 소아재활 치료기관 위한 후원금 전달



삼정KPMG가 롯데의료재단과 함께 지난 2월 5일 보바스어린이의원에서 소아재활 치료기관을 위한 후원금 3,000만 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은 2024년 개원하는 보바스병원 '어린이 재활센터'의 건립 및 안정적인 의료환경 운영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전달식에는 삼정KPMG 구승회 부회장, 임근구 부대표, 롯데의료재단 김천주 이사장, 보바스어린이의원 윤연중 원장 등이 참석했다. 보바스어린이의원은 국내 최초의 소아재활 전문병원으로, 뇌병변 질환과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 및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발달 지연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어린이들에게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로 설립됐다. 삼정KPMG 사회공헌위원장인 임근구 부대표는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 ACI,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관련 'Issue Report' 발간



삼정KPMG ACI(Audit Committee Institute,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 운영 경과 및 3차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영향을 분석한 'Issue Report'를 발간했다. 특히, 2024년부터 적용되는 3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감사(위원) 등 이해관계자가 고려할 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ACI는 자문교수인 서울대 경영대 김우진 교수와 공저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발행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핵심지표 공시 내용의 신뢰도와 충실도를 분석한 학술 논문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현행 핵심지표 준수 여부 및 미준수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는 방식의 한계점을 분석해 향후 공시제도의 질적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보고서와 논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24년 투자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배구조 이슈' 대담 영상은 삼정KPMG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4 아이디어톤 설명회' 진행 ... 결선 2월 20~21일 개최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아이디어톤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2024 KPMG 아이디어톤' 설명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KPMG 아이디어톤'은 삼정KPMG가 주최하는 대학생 아이디어 대회로, 올해는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한 기업업무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 프로토타입 구현'을 주제로 2월 20~21일 양일 개최된다. 설명회는 서류에 합격한 팀을 대상으로 유튜브 라이브(Youtube Live)로 진행됐으며, 양현석 전무가 Lighthouse 조직을, 이동근 전무가 AI Center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대회 심사기준, 코치, 스태프 소개 등 국내 대회 진행 방식이 안내됐으며, 실시간 Q&A를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우승팀에는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되고, 라이트하우스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아울러 2등은 500만 원, 3등은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Contact: 유안나 대리 annayoo@kr.kpmg.com, 02-2112-0274



## 경제연구원, CES 2024로 미래 산업 내다봐... 보고서 발간 및 대내외 강연 진행 외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CES 2024에 관한 보고서 발간 및 대내외 교육 등으로 미래 산업을 전망했다. 먼저, 지난해 12월 21일에는 'CES 2024 프리뷰: 미리 보는 CES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해 CES 출장을 앞둔 기업인들을 위한 CES 2024 전시 구역별 특징, 관련 포인트, 교통 수단 등의 유용한 Tip을 담았다. 아울러, 주목할 만한 키워드별 주요 제품 및 기술을 설명했다. 또한, CES 2024 출장자를 위한 Tip 유튜브 영상도 제작해 쉽고 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행사가 열린 1월 9~12일에는 CES 2024에 직접 참가하여, 현장에서 발표된 AI 등 최신 기술과 생생한 산업 트렌드를 담은 'CES 2024로 본 미래 산업 트렌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청룡의 해를 맞이해 CES 2024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D.R.A.G.O.N(Digital healthcare, Robotics, Automobile, Generative AI, On-device AI, Net-zero)'을 제시했다. 또한,

CES 2024 10대 트렌드를 분석해 트렌드별 주요 제품을 살펴봤다. 이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대내외 강연을 진행해 CES 2024로 살펴본 미래 산업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파했다. 고객사를 대상으로 열리는 '화산일주(화면 권 김에 산업일주)'는 올해 처음 개설된 강연으로, 그 첫 순서로 1월 25일에 'CES 2024 특집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약 600명의 고객사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자정보통신엔터미디어산업 리더인 염승훈 부대표와 경제연구원 박도휘 수석연구원과 최창환 책임연구원이 연사로 나서 CES 2024 10대 트렌드 및 혁신 제품 소개, 최고혁신상의 특징을 분석했다. 또한, 삼정KPMG 임직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알쓸산지(알면 쓸데 있는 산업 지식)'를 1월 19일 Teams Live로 진행하며, CES 2024에서 소개된 혁신 기술을 소개하고, 향후 산업 전망을 내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CES 2024 출장자를 위한 Tip' 및 'CES 2024 온라인 세미나'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삼정KPMG 아카데미, COP28 Review: UAE 컨센서스 외 신규 콘텐츠 추가

삼정KPMG 아카데미 신규 콘텐츠가 추가됐다. 이슈브리핑으로 'COP28 Review: UAE 컨센서스'가 추가됐으며, 2023년 12월 13일 폐막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국내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논의사항과 핵심 이슈 분석이 담겼다. 또한 '유럽현지 ESG 전문가가 조언하는 CSRD 대응전략' 강의는 삼정KPMG ESG 비즈니스 그룹이 독일 전문가들이 CSRD(EU 지속가능성공시기준)의 대응전략을 논의한 내용이 포함됐다. 비즈니스 리포트에서는 'CES 2024 프리뷰: 미리 보는 CES 트렌드'와 '북한 희토류와 남북 협력 로드맵' 보고서가 추가됐다. 기업의 성공적 미래 전략을 지원하고자 23개 산업별 관측을 담은 '2024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이 발간됐다.



삼정KPMG 아카데미 바로가기

\*Contact: 삼정KPMG 아카데미 kr-fmacademy@kr.kpmg.com, 02-2112-7731

[NOTICE] 세미나 소식 알립니다

개정세법 세미나



**주제:** 2024년도 개정세법 주요 개정 사항 **일시:** 2월 22일(목) 14:00~17:20 **장소:** 온라인 웨비나(Webinar) 진행 **신청:**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참가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문의:** 윤이나 과장 (02-2112-0269, yinayoon@kr.kpmg.com) ※ 강연자, 시간 및 주제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Time	Agenda	Agenda
14:00~14:05 (05")	인사말	최영록 고문 (前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14:05~14:40 (35")	Session 1: 국제기본법/ 법인세법	이현규 상무 (조세1본부)
14:40~15:20 (40")	Session 2: 조세특례제한법	최형훈 상무 (조세2본부)
15:20~15:55 (35")	Session 3: 국제조세	백천옥 상무 (조세3본부)
15:55~16:05 (10")	Break time	
16:05~16:45 (40")	Session 4: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안성기 상무 (조세4본부)
16:45~17:20 (35")	Session 5: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최세훈 상무 (조세4본부)

유럽 ESG 정보공시 대응 세미나



**주제:** EU사례와 국내기업의 이행 방안 **일시:** 2월 21일(수) 14:00~17:00 **장소:** 온라인 웨비나(Webinar) 진행 **신청:**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참가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문의:** 신정민 차장 (02-2112-7731, jungminshin@kr.kpmg.com)

Time	Agenda	Agenda
14:00~14:05 (5")	개회사	김교태 삼정KPMG CEO Goran Mazar (KPMG Europe ESG Head)
14:05~14:25 (20")	글로벌 ESG 공시규제 동향 및 시사점 CSRD, ISSB, SEC/California rule	황정환 상무 (삼정KPMG)
14:25~14:45 (20")	CSRD 최신동향 및 실무이슈 CSRD 규제 요구사항 및 추진 범위, Timeline, Data 관리 체계, 규제 대응 프로세스, 한국 기업 대응 시사점 등	Jan-Hendrik Gnaendiger (KPMG ESG Reporting Leader)
14:45~15:15 (30")	CSDDD (유럽공급망실사법) 최신 동향 CSDDD 개정 동향, 한국 기업 대응 시사점 등	Roxana Meschke (KPMG Germany)
15:15~15:30 (15")	Break time	
15:30~16:10 (40")	CSRD 실행 방안 단계별 CSRD 대응 전략, 프로세스 및 Timeline, EU기업의 추진 사례 등	Jan-Hendrik Gnaendiger (KPMG ESG Reporting Leader)
16:10~16:40 (30")	ESG 리포팅 대응 전반의 EU Case Study (조직 및 운영 중심) 본사/유럽 현지 법인 간 역할, 조직구조 및 인력 구성원 사례, Scope 1/2/3 리포팅 사례, 기후 변화 관련 재무 Impact 분석 사례 및 한국 기업 대응 방안	Jan-Hendrik Gnaendiger Goran Mazar
16:40~16:50 (10")	Q&A session	황정환 상무 Jan-Hendrik Gnaendiger
16:50~17:00 (10")	Wrap up & closing	이동석 부대표 (삼정KPMG ESG Leader) Goran Mazar







##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http://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mailto: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